

전통사회에서 외래종 작물인 고추의 효능 인식 - 한국 전통의서를 중심으로 -

오준호 · 권오민 · 박상영 · 안상우*

한국한의학연구원 문헌연구그룹

Recognition of Medicinal Efficacy of Pepper as an Introduced Species in Traditional Medicine

Junho Oh, Ohmin Kwon, Sangyoung Park, Sangwoo Ahn*

Medical History & Literature Research Group, Korea Institution of Oriental Medicine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look at how pepper was used in traditional medicine. In other words, this study aims to take a look at the process by which the medicinal nature & efficacy of pepper in traditional society was perceived and arranged through the aspects of the use of pepper as an exotic crop for treating diseases. This study investigated cases of using pepper for medical treatments by referring to books on traditional medicine in Korea. The old records about pepper are mainly in empirical medical books from the late Chosun dynasty. Nevertheless, the records about pepper tend to decrease in medical text as time goes by. Such a phenomenon can be attributable to the fact that people began to use pepper for daily food life rather than for medicinal purposes. Pepper was used mostly for digestive trouble such as vomiting, diarrhea, and stomachaches, and it was also applied to mental and aching diseases caused by the sound of body fluids remaining in the stomach. In addition, there were many cases where pepper was used externally for surgical disorders. Such symptoms for treatment are linked to, or in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with, research results in modern times. Boiled pepper was generally taken in the traditional herbal decoction method, and in the case of surgical diseases, it was applied externally. The cases of using old pepper, using pepper with seeds or without seeds, and using pepper mixed with sesame oil belong to a sort of herbal medicine processing, which usually aimed at changing the medicinal nature of pepper. In addition, in relation to the eating habits at that time, pepper was used as seasoning and to make red pepper paste with or without vinegar. There are two words used for pepper in the medical textbooks, 苦椒 (gocho) and 烈藿 (yeoljo). These words are translated into Korean as gochu, so we can identify this word as a nickname for pepper.

Key words: Red pepper, Korean medicine, traditional medicine, medical history

1. 서 론

오늘날의 약들은 주로 실험실에서 합성되거나 천연물에서 유효성분만을 추출한 뒤 임상시험을 거쳐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어지는 반면, 동아시아 전통의학에서 약재의 효능은 전대 문헌과 당대의 경험지식에 의거하여 규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수식화되지 못했던 전통의학의 지식은 종종 원시적이거나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전통지식이 신뢰할만한 사실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재평가 되면서 최근 생물유전자원과 전통지식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2010년 타결

된 나고야 의정서(Nagoya Protocol)는 이에 대한 국가들 간의 관심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또 아직까지는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이지만, 이미 기존의 산업재산권이나 저작권으로 보호하기 힘든 새로운 형태의 지식자산인 ‘신지식재산(new intellectual property)’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는 있는 상황이다. 이미 전통 지식자원 보유국(인도, 중국, USA 등)을 중심으로 전통지식 관련 DB가 집중적으로 구축되고 있으며 문서화되지 않은 전통지식도 선행기술로 인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 중이다(신 등 2010). 우리나라에 축적된 의약 분야의 전통지식을 정리하고 공유하는 것은 자국의 학문적인 측면과 아울러 재산권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 되었다.

*Corresponding author: Sangwoo Ahn, Medical History & Literature Research Group, Korea Institution of Oriental Medicine, 483 Expo-ro, Yoseong-gu, Daejeon, 305-811, Korea Tel: 82-42-868-9442 Fax: 82-42-863-9463 E-mail: answer@kiom.re.kr

이에 필자는 과거 전통의서 속에 고추가 사용된 치법들을 정리하고 고찰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고추를 연구 소재로 삼은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이다. 한 가지는 우리 사회에서 고추가 가지는 중요성 때문이다. 고추는 오늘날 우리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식재료일 뿐만 아니라, 한식의 특징을 대표하는 식재료 가운데 하나이다. 다른 한 가지는 고추가 지니는 역사적 맥락 때문이다. 고추는 임진왜란을 전후로 우리나라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남미의 자생식물로서 16세기 중엽에 동아시아에 전파된 식물이다(조 2008). 따라서 고추를 접한 동아시아 사람들은 고추의 약성이나 효능에 대해 참고할만한 전대 문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오로지 경험을 통해 의학적 지식을 축적하였다. 따라서 고추를 사례로 외래 작물이 도입되어 질병 치료에 활용된 모습을 통해 전통사회에서 약재의 약성과 효능이 인식되고 정리되는 과정을 엿볼 수 있다.

II. 본 론

고추는 전통사회에서 苦椒, 南蠻椒, 南椒, 辣茄, 辣椒, 番椒, 倭芥子, 倭椒 등으로 표현되었으며 조선후기에는 주로 番椒와 苦椒라고 기록되었다(김 2010). 본 연구에서는 고추가 어떤 병증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알아보고자 우리 의서 속에서 고추를 의미하는 용어가 들어간 치법을 조사하였다. 조사는 한의고전명저총서DB¹⁾에 수록된 한국 전통의학 관련 고의서 336종에서 고추를 의미하는 위의 단어들을 차례로 검색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검색 결과 苦椒 20건, 南椒 12건, 番椒 4건, 南蠻椒 1건이 검색되었으며, 辣茄, 辣椒, 倭芥子, 倭椒는 모두 검색 결과가 없었다. 검색 결과 가운데 고추를 의미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만을 선택하여 원문 자료를 추출하고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고찰의 편의를 위해 치법에는 차례로 번호를 부여하였다.

1. 우리 전통 의서 속에 나타난 고추와 관련된 기록

우리 전통 의서 속에 고추가 들어 있는 치료법들을 의서를 기준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醫方合編』(16세기)²⁾

① 호박고(胡朴膏). 찹쌀로 밥을 짓고 누룩과 밥을 섞는다. 꿀 참기름 후추 천초 고추 건강 겨자 메밀 고련근 목단피 각 5홉을 곱게 가루 낸다. 호박 가장 큰 것을 골라 꼭지를 따 구멍을 내고 씨를 제거한 후 위의 재료들을 그 안에 모두 집

어넣고 꼭지를 다시 닫는다. 진황토를 물에 개어 호박 전체를 두툼하게 바르고 왕겨불에 묻어 하루 밤낮이 지난 다음 꺼내 공복에 꿀물에 타서 먹는다. 흥복통, 산증(痧症), 복창, 담혈(痰血), 복랭(腹冷) 등의 증상에 신효하다. (胡朴膏. 粘米作飯, 曲子量飯, 用清蜜 眞油 胡椒 川椒 苦椒 乾干 芥子 木米 苦蓮根 牧[杜]丹皮 各五合, 細末. 胡朴最大者, 開頭作孔去核後, 右材合製其中, 開頭還閉, 取眞黃土, 泥而厚塗全體, 糠火埋之, 過一晝夜後, 取出, 空心蜜水調下, 胸腹痛, 痧症, 脹症, 痰血, 腹冷等症, 神效. 『醫方合編』「調養門」)

2) 『實驗單方』(1709)³⁾

② 치통에는 검푸른 물을 들인 베[靑木布]에 고춧가루 약간을 싸서 단단히 묶은 다음 뜨겁게 달인 참기름 속에 담갔다 꺼내 아픈 치아위에 얹어 놓고 물고 있으면 곧 통증이 멎는다. (齒痛, 靑木布, 裹苦草末小許堅束, 沈於眞油熱湯中, 置痛齒上 【물면】, 卽止.)

③ 냉해(冷咳) 및 그 밖의 기침에는 우렁이를 회를 쳐서 먹는데, 살아 있는 것을 깨끗이 씻은 후 다만 초고추장[醋苦草漿]에만 찍어 배불리 먹고 따뜻한 술 한두 잔을 마신다. 술을 마시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맹물 끓인 것 한 대접을 마신다. (冷咳及他咳, 螺膾 【우렁】 以生淨洗, 但醋苦草漿飽食後, 服溫酒一二盃. 若不飲酒, 白沸湯一大接服)

④ 토혈(吐血)과 홍수나 조수로 인한 풍토병에는 미꾸라지를 많이 잡아 단지 속에 넣고 그 속에 왕겨(王糠)를 넣고 오랫동안 문질러 씻어주어 미꾸라지가 모두 하얗게 되는데, 머리와 꼬리를 떼어내고 다만 초고추장만 미꾸라지회에 섞어 그릇에 넣고 봉하여 반 식경 가량 두었다 배불리 먹고 따뜻한 술을 복용한다. 만약 술을 마시지 못하는 경우라면 맹물 끓인 물로 대체한다. 이와 같이 수차례 복용하면 효과가 난다. (吐血及土疾與湧潮, 鱸魚多得置缸中, 入王糠而久磨洗, 則皆白然後, 去頭尾, 但醋苦草漿, 調鱸魚膾, 封器, 置半食頃後, 因飽食服溫酒. 若不飲酒, 白沸湯一器亦處. 如是數次服, 顯效)

⑤ 토하고 설사하여 서루증(鼠瘻症)이 생겼을 때는 목은 고추(배를 가르지도 꼭지를 떼 내지도 않는다) 한 줌을 달인 것 반 탕기(湯器) 분량 복용한다. 낫지 않으면 다시 반 탕기(湯器)분량을 마신다. 이 약은 따로 독이 없는 확란에 쓰는데, 오한과 전율이 나고 배가 항상 아픈 경우에는 황금 2돈을 달여 복용한다. (吐瀉, 有生鼠之症, 陳苦草半握, 勿剖腹勿

1)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고전명저총서DB. <<http://jisik.kiom.re.kr/>>

2) 『의방합편』의 성립 연대는 알 수 없다. 다만 의방합편이 16세기 의학지식을 담고 있어 이와 같이 표시하였다. 『의방합편』에는 “三意方 村家救急方 經驗方 雜方 合部第一”라고 하여 『삼의일협방(三意一驗方)』(16세기), 『촌가구급방(村家救急方)』(1538) 및 ‘잡방(雜方)’과 ‘경험(經驗)’ 처방들을 삼입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대부분 『본초강목습유』이전의 16세기 의학 지식들이다.

3) 『실험단방』은 1709년(숙종35) 산청에서 의료활동을 하던 유이태(劉爾泰, 1652~1715)가 당대의 의약지식과 자신의 의학경험을 정리하여 저술한 경험의방서(經驗醫方書)이다.

去薺, 煎飲半湯器. 若不差, 更飲半湯器. 此藥, 別無毒瘡亂, 寒戰之氣, 常存腹痛, 則黃芩二錢煎服)

⑥ 곽란. 크고 묵은 고추(꼭지를 따지 않고 배도 가르지 않는다) 7개를 물 3보시기를 넣고 1보시기가 될 때까지 달인 다음 꿀을 타서 연속해서 3일을 복용하면 곧 낫는다. (霍亂. 陳苦草大者七介, 勿去薺剖腹, 水三保兒, 煎至一保兒, 調蜜, 連三朝服, 卽差)

⑦ 담으로 미치는 증상이 곽란과 같이 아픈 환자는 여기 저기에서 쓰러진다. 고추(꼭지를 제거하지 않고 배를 가르지 않는다) 1줌, 할미꽃 뿌리 3줄을 함께 물에 달여 단술을 만들어 마시면 신기한 효과가 있다. (有痰狂, 其症如霍亂痛者, 東仆西顛. 苦椒不去薺不剖腹一握, 老姑根三握, 同煎作甘酒飲, 神效)

⑧ 괴질로 계속 토하고 뱃속이 뒤틀릴 때는 고추 반 줍을 준비해 손톱으로 배를 가르고 꼭지를 떼어 낸 다음 물에 달여 복용하면 낫는다. (怪疾連吐, 腹中如捲執, 苦椒半握, 爪剖腹去薺, 煎服, 差.)

3) 『宜彙』(1871)⁴⁾

⑨ 이일학. 늙은 개의 가죽과 내장을 제거하고 내장 안에 생강 1되, 고추 1되를 넣고 탕을 만들어 수시로 복용한다. (老狗去皮及內腸, 腸裏入生干一升, 苦椒一升, 作湯, 時時服之. 『宜彙』「二日瘡」)

⑩ 남과고(南菰膏). 남과 【호박】고. 찹쌀 5홉(밥을 짓는다), 누룩가루 맥아가루 메밀 싹 가루 생꿀 참기름 각 3홉, 목단피 차전자 고련근 겨자 건강 호초 고초 천초(모두 가루낸다) 각 3홉. 이상의 재료들을 가루내고 호박(붉게 익은 것으로 속에 5~6되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크기의 것) 윗부분의 뚜껑을 자르고 속을 긁어낸 다음 약을 그 속에 넣는다. 잘라낸 뚜껑을 닫고 새끼로 묵은 다음 황토 흙으로 단단히 싸서 것불에 묻어두었다가 푹 익히면 빈속에 양껏 따뜻하게 하여 복용한다. 습(濕) · 화(火) · 냉(冷) 및 여러 가지 담괴(痰塊)로 인한 혈증, 막히는 증상, 흥복통, 산증이나 서증으로 인한 여러 가지 복통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나지 않는 경우가 없다. (南菰膏. ○南瓜 【호박】膏. 粘米五合作飯, 曲子末 麥芽末 木芽末 生清 眞油 各三合, 牧丹皮 車前子 苦練根 芥子 乾干 胡椒 苦椒 川椒并作末 各三合. 右料作末, 南瓜紅熟可容五六升者, 割蓋祓實, 納藥其內. 蓋釘索縛, 黃泥固濟, 埋于糠火, 待爛熟, 空心隨量溫服. 治濕火冷及諸痰塊血症, 瘀滯症,

胸腹痛, 疝暑諸般腹痛, 無不效. 『宜彙』「補益」)

⑪ 괴질에 쓰는 약. (중략) 모과 4개, 석류 5개, 생강 1근, 호초 1되, 고추 50개, 마늘 30개. 이상의 약미들을 질게 쪼고 찬물 15그릇을 넣어 2그릇이 될 때까지 진하게 달인 다음 소금 5돈을 타서 다시 약한 불에 검게 마를 때 까지 다려 가루 낸다. 증상이 심할 때는 3돈을, 가벼운 증상에는 2돈을 술에 타서 복용하거나 물에 타서 복용한다. 예방을 하려면 7푼을 물에 타서 마신다. (怪疾藥, (中略) 木果四介, 石榴五介, 生干一斤, 胡椒一升, 枯椒五十介, 大蒜三十本. 右諸種爛擣, 冷水十五器, 濃煎至二器, 後白鹽五升, 調和, 更以慢火煎至焦乾, 作末. 重症三錢, 輕者二錢重, 調酒服, 或和水服. 若或預防, 則七分重, 和水飲. 『宜彙』「泄瀉」)

⑫ 발배창저. 포자인 【박씨】을 질게 씹어 현대 뿌리의 한가운데에 붙인 다음 고추[苦椒] 1개를 쪼개 씨를 제거하고 박씨 위에 붙여 고추껍질이 바깥쪽에 있게 한다. 하루에 한 차례씩 갈아주면 현대의 뿌리가 박씨에 달라붙어 빠져나오고 고름이 나온다. 뇌종과 발제종(髮際腫)에도 이와 같은 방법을 쓰는데, 단지 박씨를 쓰지 않고 삼씨를 쓰는 것만 다르고, 모두 신기한 효과가 있다. (背發瘡疽. 用匏子仁 【박씨】嚼爛, 付之正中根處, 以苦椒一介, 坼開去子, 付于匏子上, 令椒皮在外. 日易一次, 則根隨匏子, 膿出. 凡腦腫 · 髮際腫, 一如上法, 但不用匏子, 用麻子, 皆神效. 『宜彙』「癰疽」)

⑬ 호랑이에게 물린 경우. 고추를 가루내고 물린 부분에 붙이면 독물이 저절로 나온다. (虎咬. 苦椒作末, 付咬處, 毒水自流. 『宜彙』「諸傷」)

⑭ 괴질경험방(怪疾經驗方) 【정약용(丁若庸)이 만든 처방이다】. (중략) 고추 반 줍을 씨를 제거하고 급히 달여 입 속에 부어주는데, 급할 때는 즙을 내어 쓴다. (怪疾經驗方 【丁若庸方】 (中略) 苦椒半握去核急煎, 灌口中, 急則取汁用. 『宜彙』「宜彙拾遺」)

⑮ 가슴과 배가 아픈 경우. 감꼭지와 고추를 달인 물에 꿀을 타서 복용한다. (胸腹痛. 煎帶⁵⁾薺, 苦椒, 和蜜服. 『宜彙』「腹痛」)

⑯ 회충으로 아픈 증상. 증상의 시기나 통증이 막 발생하였거나 오래된 것을 막론하고 열조 【고추】 1되(가운데를 꺾는다)에 참기름 1되를 넣고 달여 절반 이상 남게 되면 고추를 다 빼낸다. 잠에서 깨어나 빈속에 많이 마시면 회충이 죽

4) 『의취』는 조선 고종 때 금리산인(錦里山人)이 ‘근세명결(近世名訣)’과 ‘속약상방(俗藥常方)’ 중 자신이 여러 차례 경험한 것을 모아서 쓴 5권 5책의 필사본으로 된 의방서(醫方書)이다. 제문(題文)에 신미계춘하한(辛未季春下泮)이라 적혀져 있어 고종 8년(1871)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5) 帶: ‘柿’의 오기로 보인다.

어서 모두 나온다. (蛔痛. 不論年之多小, 痛之久近, 烈棗【고초】一升折腰, 入眞油一升, 煎之, 踰半, 後棗則盡棄之. 睡覺, 空心痛飲, 則蟲死盡下. 『宜彙』 「諸蟲」)

⑰ 물사마귀에는 해당 부위를 도려내고 고추진액을 바른 다. (水瘡, 刮其當處, 苦椒津塗之. 『宜彙』 「面病」)

4) 『袖珍經驗神方』(1912)⁶⁾

⑱ 담견. 고추장 1순가락, 꿀 1순가락을 물에 타서 따뜻하게 복용하면 하룻밤 지나 차도가 있다. (痰牽. 苦椒醬一匕, 清蜜一匕, 和水溫服, 一宿差. 『袖珍經驗神方』 「第三十三章痰飲症」)

⑲ 적리. 당귀 5돈, 고초 3개를 달여 빈속에 여러 번 복용하면 차도가 있다. (赤痢. 當歸五錢, 苦椒三介, 煎服空心數次, 差. 『袖珍經驗神方』 「第二十四章大便病」)

5) 『醫寶』(조선후기)⁷⁾

⑳ 마두중. 처음 시작되려고 할 때에 고추 넣고 끓인 물 1되로 지은 찹쌀밥에 맥아 가루를 넣고 끓여 단술을 빙는다. 따뜻하게 복용하여 3차례 땀을 내면 낫는다. (馬刀腫 가릭쌀. 始初時, 苦椒每一升煎水, 炊糯飯, 和麥芽末, 煎成甘酒, 溫服發汗, 數三次, 如是則自解. 『醫寶』 「陰腫」)

㉑ 이질. 당귀신 5돈과 꼭지를 떼지 않은 고추 7개를 함께 끓이고 꿀을 조금 넣는다. 단맛이 나면 추목나무 껍질을 한 줌 넣고 같이 끓인다. 꿀물과 함께 복용한다. (痢症. 當歸身五錢, 苦椒七枚不去蘆頭, 同煎, 和蜜小許, 有甘味, 而楸木皮各一握同煎, 和蜜水服之. 『醫寶』 「諸病救急方」)

이상을 병증 혹은 사용 방법이 유사한 것끼리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Table 1> Medicinal efficacy of pepper as an induced species in traditional Korean medicine

병증	동반 약재	고추 표현	제형	사용방식	꼭지 제거	씨 제거	배가름
① 胸腹痛, 疝症, 脹症, 痰血, 腹冷 등	호박, 찹쌀, 누룩, 꿀, 참기름, 후추, 천초, 건강, 겨자, 메밀, 고련근, 목단피	苦椒	고	內服	-	-	- 胡朴膏
⑩ 濕火冷及諸痰塊血症, 瘀滯症, 胸腹痛, 疝暑諸般腹痛	누룩가루, 맥아가루, 메밀가루, 생꿀, 참기름, 목단피, 차전자, 고련근, 겨자, 건강, 호초, 천초, 찹쌀밥	苦椒	고	內服	-	-	- 南茱膏
⑭ 怪疾	-	苦椒	탕제/즙	內服	-	○	○
⑧ 怪疾 連吐	-	苦椒	탕제	內服	○	-	○
⑪ 怪疾 泄瀉	모과, 석류, 생강, 호초, 마늘, 소금	枯椒	탕제	內服	-	-	-
⑤ 吐瀉, 鼠瘻症	-	陳苦草	탕제	內服	×	×	×
⑥ 癰亂	꿀	陳苦草	탕제	內服	×	×	×
⑲ 赤痢	당귀	苦椒	탕제	內服	-	-	-
㉑ 痢症	당귀신, 꿀, 추목껍질	苦椒	탕제	內服	×	-	-
⑮ 胸腹痛	감꼭지, 꿀	苦椒	탕제	內服	-	-	-
⑮ 蛔痛	참기름	烈棗	탕제	內服	-	-	가운데 곁음
⑦ 痰狂	할미꽃 뿌리	苦椒	탕제	內服	×	×	×
⑨ 瘡疾(二日瘡)	개고기, 생강	苦椒	탕제	內服	-	-	-
⑮ 痰牽	꿀	苦椒醬	고추장	內服	-	-	-
② 齒痛	참기름	苦草	가루	外用	-	-	-
⑬ 虎咬	-	苦椒	가루	外用	-	-	-
⑫ 背發瘡疽/腦腫・髮際腫	박씨/마씨	苦椒	날것	外用	-	○	○
⑰ 水瘡	-	苦椒津	진액	外用	-	-	-
⑳ 馬刀腫(始初時)	찹쌀, 맥아	苦椒	단술	內服(發汗)	-	-	-
③ 冷咳, 咳	우렁이회	醋苦草漿	초고추장	內服	-	-	-
④ 吐血, 土疾	미꾸라지회	醋苦草漿	초고추장	內服	-	-	-

6) 『수진경험신방』은 1912년 이인재(李麟宰)가 여러 방식을 모아서 만든 의서이다.

7) 『의보』는 저자와 성립연대를 알 수 없는 소아과(小兒科) 및 부인과(婦人科)에 관한 전문의서(專門醫書)이다. 내용으로 미루어 조선 후기에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

2. 전통 사회에서 고추의 이용 방법

앞의 기록들을 바탕으로 전통 사회에서 고추를 질병에 이용했던 방법을 몇 가지 측면에서 고찰하고 고추의 효능을 어떻게 인식하였는지 정리해 보았다.

1) 고추가 실려 있는 의서와 시대

고추가 언제 우리나라에 전래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지만, 대체로 임진왜란을 전후로 우리나라에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배 & 이 등 1984; 김 & 고 1999; 김종덕 2009). 우리 문헌에서는 『지봉유설』에 최초의 언급이 등장하며, 중국의 전문 의서 가운데에서는 『본초강목습유』(1765)⁸⁾에 보인다. 한때 『救急簡易方』(1489)과 『訓蒙字會』(1527)에 ‘고초’라는 언해 표기가 나와 고추로 오해되었으나, 이는 천초나 후추를 의미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콜럼버스가 남아메리카에서 ‘아히(aji)’를 유럽으로 가져온 것이 1492년 이므로 정황상으로도 무리가 있다(김 2010).

의서에서 고추에 대한 언급은 드문 편이다. 특히 관찬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東醫寶鑑』(1613)에는 고추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보이지 않으며, 고추가 이미 민중들에게 익숙해진 뒤에 간행된 『濟衆新編』(1799)에서도 그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 이는 『제증신편』에 수록된 약성가에 호박[南瓜]이나 담배[煙草] 등 다른 외래종 약재가 들어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논의하고자 한다.

관찬의서와는 달리 조선 후기 의학경험을 집적한 경험방서적들에는 고추에 대한 언급이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앞 절에서 살펴보았다. 고추에 대한 가장 이른 시기의 의학 기록은 『醫方合編』의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성립 연대가 정확하지 않지만 대략 16세기 의학지식을 담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⁹⁾ 따라서 고추는 부분적으로나마 전래된 초기부터 약제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아 치료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추에 대한 의학경험은 18-19세기 무렵에 가장 풍성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다른 의서와 비교하였을 때 양적인 면에서 『實驗單方』(1709)과 『醫彙』(1871)에 고추를 이용한 처방이 가장 많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2) 고추의 치료 적응증

『本草綱目拾遺』(1765)에는 고추를 ‘辣茄’라고 하였으며, 食茱萸, 番姜, 辣茄, 臘茄, 海瘋藤, 秦椒, 辣虎 등의 異名으로도 불린다고 하였다. 저자 趙學敏은 고추에 대한 여러 문헌

내용을 나열하고 “고추의 성질은 뜨거우면서 홀으며, 심경과 비경으로 약기운이 들어간다. 또 수습을 제거할 수 있다.”¹⁰⁾ 고 하였다. 또 “성질이 뜨겁고 맛이 무척 맵다. 중초를 따듯하게 하고 한기를 흩어주며 풍사를 제거하고 땀을 낸다. 찬 성질의 적취를 제거하고 담과 습을 몰아낸다. 많이 먹으면 어지러운데, 화를 돋오시키기 때문이다. 오래 먹으면 치질이 생기고 이빨이 아프거나 목이 붓게 한다.”¹¹⁾라고 하였다. 그는 당시 문헌에서 外痔, 毒蛇傷, 祛臭蟲方, 凍瘡, 痢積水瀉에 대한 치료 방법을 채록하여 기록해 놓았다.

고추가 실려 있는 조선 의서들이 주로 경험방들이기 때문에 본초서처럼 약성이나 효능이 직접 설명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고추를 이용했던 증상이나 질병은 『본초강목습유』의 기록보다 다양하고 자세하다. 조선 의서에서는 嘔吐, 泄瀉, 腹痛의 소화기 질환에 고추를 가장 비중 있게 사용하였다. 구토와 설사의 경우 怪疾이나 霍亂으로 병발된 경우에도 사용되었다. 怪疾은 주로 원인 불명으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질환이나 전염성이 있는 질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런 경우에 구토와 설사가 주요 증상이라면 고추를 이용했다. 복통의 경우 흥복통 혹은 회충으로 인한 복통에 주로 사용되었다.

한편, 고추는 痰과 관련된 질환인 痰狂과 痰牽을 치료하는 데에도 사용되었다. 양자 모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한의학 용어가 아니고 증상을 표현하기 위해 저자가 만들어 내거나 축약한 단어들이다. 痰狂은 痰飮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정신질환을 의미하며, 痰牽은 전신의 동통질환으로 흔히 ‘담이 걸린다.’는 말을 한문식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정신 질환과 동통질환에도 고추를 응용한 셈이다.

外科 질환에는 고추를 外用하였다. 특히 물 사마귀에 고추 진액을 사용하였으며, 이빨의 통증이나 동물에게 물린 경우에도 환부에 직접 사용하였다.

이상의 결과들을 현대적 연구결과들과 함께 살펴보면 몇 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우선, 현대적 연구들에서는 고추가 위장에서 소화 촉진에 미치는 영향을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기능성 소화불량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손 2002). 하지만 위배출 효과는 미미하다고 알려져 있다(Choi 등 2005). 전통 의서에서도 고추를 소화기계통에 사용하기는 하였지만, 주로 嘔吐, 泄瀉, 腹痛 등에 활용하였다. 이런 점을 참고한다면 고추의 의학적 효능을 검토하기 위한 실험적인 연구 방향은 다소 변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추를 달인 탕은 일반 살균력은 미약하지만 수양성 설사를 주증으로 하는 콜레라균에 있어서는 강력한 살균력을 발

8) 『本草綱目拾遺』는 清代 趙學敏이 편찬하여 1765년 간행한 본초학 전문서로서, 서명에서 알 수 있듯이 『본초강목』에 빠진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목적으로 쓰여 졌다. 실제로 여기에 실려 있는 921종의 약재 가운데, 『본초강목』에 실려 있지 않은 것이 716종에 달한다. 고추 역시 이 가운데 하나로 실려 있다(안상우 2005).

9) 『醫方合編』서두에 “三意方 村家救急方 經驗方 雜方 合部第一”라고 하여 『삼의일험방(三意一驗方)』(16세기), 『촌가구급방(村家救急方)』(1538) 및 ‘잡방(雜方)’과 ‘경험(經驗)’ 처방들을 삽입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책의 성서 연대는 후대라 하더라도 이 책에 수록된 의학지식은 대략 16세기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0) 『本草綱目拾遺』「諸蔬部, 辣茄」“蓋其性熱而散, 能入心脾二經, 亦能祛水濕.”

11) 『本草綱目拾遺』「諸蔬部, 辣茄」“性熱味辣, 溫中散寒, 除風發汗, 去冷癖, 行痰逐濕. 多食眩暈, 動火故也. 久食發痔, 令人齒痛咽腫.”

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조 2008). 이러한 사실은 괴질로 발생한 설사에 고추를 사용하였다는 기록과 매우 연관성이 깊다.

3) 제형 및 이용 방법

고추는 주로 끓여 복용하는 방법이 다용되었다. 내복제의 경우 대부분 단독 혹은 다른 약재와 함께 끓여 먹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는 약재를 달여 먹는 전통에 기반을 둔 것으로 보인다.

문헌 내용을 보면, 고추를 이용할 때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고추의 배를 갈라 씨를 빼고 쓸 것인지의 여부이다. 일부 처방에서는 고추 배를 가르지 말고 씨도 빼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⑤ ⑥ ⑦)이 있는가 하면, 배를 갈라 씨를 빼내라고 한 것(⑧ ⑫ ⑭)도 있다.

고추씨는 자극적인 향과 맛을 가지고 있으며 비타민E와 유해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리놀산이 함유되어 있다(조 2008). 따라서 고추씨를 제거하면 고추의 매운맛이 줄어드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효능면에서도 전체를 사용하는 것과 차이가 생겨나게 된다. 씨를 제거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기에는 문헌 근거가 미약하지만, 향후 고추에 대한 실험연구가 진행된다면 씨를 분리할 것인가 포함시켜야 할 것인가를 명료하게 통제해야 할 것이다.

고추는 묵은 것을 사용하는 경우(묵은 고추, ⑤ ⑥)도 있었다. 한의학에서는 묵을수록 약성이 좋아지는 약재들이 있는데, 고추 역시 묵을수록 약성이 좋아진다고 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 묵은 고추를 사용하는 것이나 씨를 제거하고 사용하는 방법 등은 모두 고추의 매운 성질을 조절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장을 담가 사용하는 경우도 눈에 띄는데, 고추장, 초고추장이 직접 언급되어 있다. 고추장의 경우(⑬) 꿀과 함께 동통질환에 사용되었고, 초고추장의 경우(③ ④) 회를 찍어 먹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맛과 치료 효과를 모두 고려한 식치의 개념을 적용한 부분이다. 한편, 18세기 초에 초고추장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는 사실은 의학적인 측면과 아울러 생활 사적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고추가 마치 양념처럼 사용된 처방도 있다. 우선 호박에 약재를 넣고 고를 만들어 먹는 방법(① ⑩)을 들 수 있다. 호박 역시 南瓜라고 하여 조선 중기에 전해진 외래 작물이다. 고추는 호박 속에 들어가는 여러 약재 가운데 하나로 사용되었는데, 고추 이외에 후추, 천초, 건강, 겨자 등 매운맛을 내는 약재들이 함께 들어갔다. 이 방법을 보면, 고추가 지금의 양념처럼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비슷한 예는 二日癰 치료법에서 개고기에 생강과 고추를 넣어 탕으로 만들어 먹

는 방법(⑨)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모두 고추가 양념처럼 사용되었는데, 이는 당시에 이미 고추가 식생활에서 익숙하게 활용되었으며 그 방법이 치료 처방에 응용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추가 참기름과 함께 사용된 경우(① ② ⑫)가 있다. 고추 매운맛의 주성분인 capsaicin은 지용성으로 물에는 잘 녹지 않는다. 따라서 참기름과 함께 사용하면 이 성분을 더 잘 스며나오게 할 수 있다. 고추를 활용한 치법을 평가할 때에 살펴봐야 할 부분이다.

4) 언어적 측면

앞서 살펴보았듯이 고추는 다양한 이명들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의서들에서는 대부분 苦草¹²⁾, 苦椒라고 기록되어 있다. 苦草의 경우 고추가 아닌 다른 식물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지만¹³⁾ 당시에 苦草는 苦椒와 더불어 고추를 지칭한 경우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醋苦草漿’에 苦草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은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뒷받침해 준다.

한편, 烈藁의 경우(⑫), 본문에 ‘고초’라고 언해되어 있어 고추의 이명임을 확인할 수 있다. 烈藁가 고추를 의미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이다.

5) 전통 사회에서 약재의 효능 규정

고추는 전통 사회에서 약재의 성미와 효능이 실천적인 경험 속에서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처음에는 한두 가지 경험들이 산발적으로 출현하다가 이들이 서로 축적되고 교류되기 시작하면서 아이디어를 공유하게 되고 이로 인해 치료 경험이 더욱 확장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약재로 사용하는 노하우가 고안되기도 한다. 참기름을 통해 고추의 매운 성질을 추출한다거나, 씨를 빼내거나 묵혀 사용함으로써 약성을 조절하려는 시도가 그것이다. 이는 고추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하려던 노력의 결과들이다.

그러나 고추의 다양한 의약경험들은 종합되어 일반화되는 단계에까지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후대 의서에 공통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치법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한 가지 약재 효능에 대한 자연 발생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는데에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데, 고추의 효능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기에 조선 후기라는 시간은 충분하지 않았을 수 있다.

한편, 앞의 자료에서 보듯 18세기 이후에 고추에 대한 기록은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조선 사회에서 고추 효능에 대한 자연 발생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고추를 약재로 사용하지 않게 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오랜 경험 속에서 고추가 다른 약재보다 비교 우위를 차지할만한 효능이 없다고 인식 되었거나, 식재료로서 고추의 가치가 지배적으로 작용하면서 약재로서 가치는 줄어

12) ‘枯椒’(⑪)는 苦椒의 오기로 보인다.

13) 김종덕은 苦草가 苦椒의 오기로 생겨난 것이며, 고추의 어원은 苦草가 아니라 苦椒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종덕 2010)

들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문헌자료에서 보듯, 고추가 치료하는 질병들은 대부분 다른 약재들로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의 것들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조선 후기가 되면 약재 수급이 비교적 원활하여 다양한 약재의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고추를 약재로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을 것이다.

고추를 약재로 인식하는 과정은 당시의 생활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도 하다. 고추의 경우 중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고추장이나 초고추장으로 사용되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적어도 고추를 이용한 의약경험은 당시 식습관의 영향을 다분히 받으며 확장되었다.

III. 결 론

지금까지 우리 전통 의서에서 고추가 사용된 처방들을 정리하여 보고하고, 그 용법을 분석해 보았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고추는 임진왜란 전후로 들어온 외래 작물로서 비교적 역사가 짧은 약재에 속한다. 따라서 선행 문헌에 언급이 많고 임상적으로 다양한 치료들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때문에 전통 의서에 실려 있는 고추에 대한 기록은 순수하게 당대의 경험적 검증에서 나온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고추에 대한 기록은 16세기부터 축적되기 시작하여 18세기 무렵에는 비교적 풍부해 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같은 외래 작물인 담배나 호박과는 달리 관찬의서나 약성가에 등장하지 않으며, 시대적으로도 18세기 이후에는 고추에 대한 기록이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조선 후기 약재 유통이 원활해지면서 약재로서 고추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으며, 아울러 고추가 식재료로서의 가치가 지배적으로 작용하면서 약재로서 가치가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셋째, 고추는 嘔吐, 泄瀉, 腹痛의 소화기 질환에 주로 사용되었으며, 담음을 원인으로 하는 정신 질환과 동통질환에도 응용되었다. 또 外科 질환에는 고추를 外用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주치증은 현대의 연구결과와 부합되거나 이를 보완하는 관계에 있다.

넷째, 고추는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탕제 방법과 같이 물에

끓여 복용하였으며, 外科 질환의 경우 외용제로 사용하였다. 고추 사용 시 묽은 고추를 사용하는 경우, 씨를 빼거나 넣고 사용하는 경우, 참기름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 등은 일종의 포제법으로서 고추의 약성을 변화시켜 사용하려는 시도들이다. 또 당시의 식습관과 관련하여 양념처럼 들어가는 경우, 초고추장이나 고추장으로 사용되는 경우 등도 있었다.

다섯째, 고추를 의미하는 의서 속 표현들은 苦草, 苦椒 등이 있었으며, 烈棗의 경우 ‘고초’라고 연해되어 있어 고추의 이명임을 확인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김중덕, 고병희. 1999. 고추(番椒, 苦椒)의 語源연구. 한국의사학회지. 12(2):147-167
- 김중덕. 2009. ‘고초’에 대한 논쟁, 농업사연구. 8(1):105-125
- 김중덕. 2010. 약이 되는 우리 먹거리. 아카데미북스. pp 65-99
- 배명희, 이성우. 1984. 고추의 歷史와 品質評價에 관한 研究. 韓國生活科學研究. 1(2):187-202
- 손정일. 2002. 고춧가루를 이용한 기능성 소화불량의 치료. 대한 소화관우동학회지. 8(2):208-209
- 신지연 외. 2010. 신지식재산권의 동향조사 및 효율적 정책 대응 방안. 특허청 과제 결과보고서. pp 69-84
- 안상우. 2005. 본초서의 계통과 본초학 발전사. 한국한의학연구 원논문집. 11(1):30
- 조은자. 2008. 한국전통식품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pp 145-146
- 한국한의학연구원(교열 교감). 2006. digital 本草集成(CD-ROM). 한국한의학연구원
- Choi HS, Shon CI, Cho YK, Kim HJ, Park DI, Chun WK, Yoon JH, Kim BI, Park JM, Kim EM. 2005. The Effect of Red Pepper on Gastric Emptying. Korean J Neurogastroenterol Motil. 11(1):33-37
- Na SK, Park HJ, Jung DH, Kim JH, Kim KW, Lee SM, Yoon S, Lee SI, Park IS. 1999. The Effect of Red Pepper and Capsaicin on Gastric Emptying. Korean J Gastroenterol. 33(4):496-503
- <http://jisik.kiom.re.kr>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고전명저총서DB

2011년 8월 11일 신규논문접수, 11월 29일 수정논문접수, 2012년 1월 3일 채택